

article

a journal of contemporary art

march 2014 issue #32

contains 20% art portrait; 25% art passage; 30% feature



시각예술저널 경향 (아티클)

10,000원

03



9 772234 177001

ISSN 2234-1773

Rethinking Art Archives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외관

창작·소통·교류 협력의 플랫폼,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개관

개관식과 더불어 개관전, 창작공간 네트워크 포럼 등 연이어 개최

(재)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각예술 레지던시인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가 오는 3월 27일 개관한다. 4월 13일까지 이어지는 개관전에는 1기 입주예술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창작센터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는 예술과 과학 융복합 특화 프로그램 운영 레지던시로서 지난 1월 17일부터 시작된 입주예술가 공모를 통해 1, 2차로 진행된 심의를 거쳐 2월 21일 총 8명의 입주예술가를 선발했다. 1기 입주예술가는 오완석, 정재연, 김태훈, 박형준, 유목연, Jürgen Dünhofen, Sarawut Chutiwongpeti, Simon Whetham이다. 국내 작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국외 작가는 3개월 단위로 거주하며, 창작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에는 입주예술가를 위한 6개의 개인 스튜디오와 공동작업실, 미디어실, 세미나실, 전사실, 샤워실, 주방, 예술서적으로 구성된 학습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동작업실에는 3D 스캐너 및 3D 프린터, 맥 컴퓨터, 기본공구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창작센터 김수연 매니저는 “본 센터에선 아이언스 프로젝트 협업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획전,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아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등),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입주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개관식 및 개관전과 더불어 3월 27일부터 양일간 창작공간 실무자 및 각 창작공간의 입주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시·도 문화재단 창작공간 Network Forum’을 개최한다.



<줄리안 오피> K3 설치 전경. 사진 Keith Park, 국제갤러리 제공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줄리안 오피 국제갤러리 / 2. 13-3. 23

후기 모더니즘의 주요 작가인 영국 출신의 줄리안 오피(Julian Opie) 개인전이 지난 2월 13일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됐다. 1980년대 건축물이나 도시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오브제들을 재해석해 독특한 화면으로 구축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줄리안 오피는 이후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인물과 장소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드로잉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어휘들을 작품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인물의 형상을 최대한 단순화, 익명화하는 픽토그램과 같은 모습으로 전환시키며 산업시대의 대량생산 방식 또는 소비문화를 작품에서 은유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그가 이번 전시에서는 비닐페인팅과 LED 패널 작품, 대형 신작 조각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중 새롭게 제작한 회화 연작은 이번 개인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전문사진가에게 보행자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의뢰한 후, 약 3천여 장에 가까운 사진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을 선택해 한 화면으로 구성해낸 것이다. 이 같은 소재를 택한 의도에 대해 오피는 “이 작품과 유사한 시리즈는 런던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서울에서 하는 전시에서 굳이 런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서울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 시리즈가 다른 작품들보다 구체성을 띠는 이유에 대해 “각각의 캐릭터가 독특한 차림새여서 마치 비주얼 룩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도 하는 느낌이었다. 또한 런던은 색채가 없고 그림자가 많아 그런 이미지로 작업했는데, 서울은 그림자를 없애고 액세서리를 강조했다. 좀 더 사실적이고 복잡한 작업이었다.”고 답했다.



<중국 젊은 작가 대안YOUNG畫> 전경

역사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의 왜곡된 간극

권인수 객원기자

중국 젊은 작가 대안YOUNG畫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2. 13-2. 23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에서 지난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젊은 작가 대안YOUNG畫>전이 개최되었다. 아이공은 여성, 소수자, 비주류의 대안시각에서 이들의 시각이 담긴 새로운 형식의 영상인 대안영상에 관한 기획과 연구,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쑨신(Sun Xun)을 주축으로 잉량(Liang Ying), 리우지아인(Liu Juayin)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 중국 영화와 작가들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으며, 11일간 매일 두 차례씩 전시 작가들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쑨신의 작품 중 <레퀴엠>, <영웅부재>, <마술사의 거짓말>, <시대의 충격> 4편은 전시장에 마련된 모니터로 개별 관람을 할 수 있게 했다. 순수미술과 판화를 전공한 작가의 경력은 애니메이션, 디지털 매체에도 녹아 들어가 독특한 표현 방식을 보여줬다.

작품 전반에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전 인류적 문제인 전쟁 대한 공포, 자본주의 등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혼란이 투영되었다. 쑨신은 역사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의 왜곡된 간극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했다. 허상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는 다양한 작품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하며 관객들을 파고들었다.

주류는 찾아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를 노출시킨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담론과 이를 다룬 새로운 매체는 여전히 접하기 어렵다. 쑨신이 던지는 역사에 대한 의문은 우리에게 낯선 질문이 아니다. 각국의 역사에 속박되어 있는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쑨신의 영상은 국내 관객들에게도 큰 여운을 남겼다.